

미국산 흰달걀 수입에도...떨어질 줄 모르는 달걀 가격

aT, 이달 초 대형마트 3사·신세계푸드와 미국산 수입란 판매 협약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8일부터 판매...국내산보다 30% 저렴한 달걀 한 판 가격 7개월 연속 7000원 웃돌아...두달 새 최대 20% ↑

올 들어 7개월 연속 달걀 한 판 가격이 7000원을 웃돌면서 광주시민 식탁에도 미국산 흰 달걀이 등장했다.

시민단체 조사 결과 시중 달걀 제품의 절반 가량이 두달 새 최대 20% 가격이 올랐다.

22일 광주 대형마트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3사는 지난 8일부터 광주지역 일부 점포에 미국산 수입 신선란을 판매하고 있다.

판매 가격은 한 판(30개) 4980-4990원으로, 국내 달걀보다 30% 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이마트는 광주지역 일부 점포에만 하루 900개 가량 들여왔으며 2주 동안 총 1만개(300판)를 판매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지난 8일부터 순차적으로 미국산 달걀을 매대에 내놓았다.

이들 대형마트 3사와 신세계푸드는 이달 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협약을 맺고 달걀 가격 안정을 위해 미국산 수입란 판매에 들어갔다.

기존 미국산 흰 달걀은 주로 제과·제빵업체에서 식재료로 활용해왔지만 달걀 고물가가 잡히지 않아 대형마트에서도 판매를 시작한 것이다.

광주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미국산 수입란은 공급이 불규칙해 판매 일정과 물량을 확정 짓기가 어렵다"며 "배정된 물량은 모두 소진된 상태며 당국과 협의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만큼 수입란 판매 지속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aT는 지난 설 이전 물가 안정을 위해 미국산 신선란 101만개를 들여오기 시작했다. 당시 시중에서는 한 판(30개) 4450원 가격에 판매됐다.

이후 당국은 4월 4000만개, 6월 8000만개 등 수입량을 늘려왔다. 이달에는 예정된 물량 5000만개에 5000만개를 추가, 한 달 동안만 1억개의 달걀을 미국에서 들여와 판매하고 있다. 올 들어 미국에서 수입된 신선란은 총 2억7000만개에 달한다.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잠잠해지면서 달걀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시중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달걀 품귀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 대형마트들은 1인당 구매 수량을 한 판으로 한정하기도 했다.

aT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광주 양동시장에서 팔리는 달걀(특란) 30개 소매가는 올해 초(1월4

일) 54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4300원)보다 25.6%(1100원) 뛰었다. 이숙고 같은 달 18일에는 6000원, 28일에는 7000원을 넘기며 가파른 상승을 기록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앞둔 2월3일에는 전년보다 69.8%(2930원) 급등한 7130원에 팔렸으며, '달걀 한 판 7000원'은 7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이날 기준 특란 한 판 소매가는 7730원으로, 전년도의 2배 수준(93.3% ↑)이다. 이미 대형마트를 제외한 소규모 마트와 슈퍼마켓에서는 한 판 가격이 8000원부터 1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최근 두 달 동안 시중에서 팔리는 계란 제품의 절반 가까이는 가격 오름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5월10일부터 7월13일까지 매주 월·화요일에 대형마트 4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4곳을 방문해 총 81개의 계란 제품 가격을 조사했다.

그 결과를 보면 38개(46.9%) 제품의 7월 셋째 주 가격이 조사를 시작한 5월 셋째 주보다 적게는 1.6%에서 많게는 20.2%까지 올랐다. 14개 제품은 가격 상승 폭이 10%를 넘었다.

32개(39.5%) 제품은 가격이 같았으며 11개(13.6%)는 0.5~10.7% 내렸다.

제품별 가격 추이를 보면 특란 10개는 5월 셋째 주 평균 4753원에서 7월 셋째 주 4937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특란 15개는 7002원에서 7209원으로,



지난 21일 미국산 수입 신선란 판매를 공지하는 이마트 광주광산점 안내문(왼쪽)과 매진을 알리는 홈플러스 광주하남점.

특란 30개는 9149원에서 9303원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7월 셋째 주 기준 특란 1개당 평균 가격이 451원으로 두 달 전(435원)보다 3.6% 올랐다.

다만 이번 가격 조사는 쿠폰이나 카드 행사 등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마트에서 구입할 때 지불하는 가격과는 차이가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리포트' 7·8월호를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대형마트에서 소

비쿠폰 할인을 적용하면 10% 저렴한 가격으로 계란을 살 수 있지만 일부 제품은 이미 5월보다 10% 이상 올라 가격을 더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1일 발표된 '2021년 2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전남지역 산란계 1일 평균 식용계란 생산량은 292만5918개로, 전년보다 12만2718개(-4.0%) 감소했다.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 여름 전력수급 비상대응 체계 가동...안정적 공급 총력

전국 244개 사업소 긴밀 협조 최대 전력공급 능력 1.2GW ↑

한국전력은 올여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 5일부터 본사 및 15개 지역본부에 전력수급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전국 244개 사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갖췄다.

발전회사와 전력거래소, 대용량 고객 등과도 비상 상황에 대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59호의 고객과 긴급절전 수요조정 약정을 체결해 885MW의 수요자원을 확보했으며, 전력 판매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계약전력 3000kW 이상 대용량 고객 1만1967호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전력수급 상황을 공유하고 최다부하 시 절전 안내를 추진 중이다.

또한 전력 사용 급증이 예상되는 지역의 전력설비 사전 점검·교체, 전력계통 과부하 해소, 공동주택(아파트) 정전 예방을 위한 진단 및 신속 복구 지원 체계 점검 등을 완료했다.



한국전력 직원들이 지난 21일 나주 본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전력수급 비상훈련을 하고 있다.

<한전 제공>

하천 제방, 침수 지역 등 취약개소 23만9124개소 및 빗물 펌프장 및 배수장 등 취수설비 2289개소의 전력설비 특별점검과 부하 예상 변압기 약 3000대의 교체 작업도 마쳤다.

이와 함께 한전은 여름철 전력수급 비상 상황 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1일 나주 본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전력수급 비상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이상고온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

황에서 불시에 발전기가 고장나 예비력이 급감하는 상황을 가정해 비상단계별로 진행됐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전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설비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비상단계별 조치사항도 철저히 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전 광주전남본부도 다음날 지역본부 계통운영센터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과 하절기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사용량 급증 때 전력수요관리 시행, 변전소 탭 조정 등 전력공급 대책 및 계통 운영 상황을 합동으로 점검했다"며 "사전 대비를 통해 하절기 안정적 전력공급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 전력수요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8월 둘째 주 전력공급 능력은 99.2GW로 지난해 대비 1.2GW 늘었다.

그러나 올여름 냉방수요는 역대 최악의 폭염이었던 2018년 대비 0.3~3.8GW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1~7월 반도체·자동차·기계장비 등 전력다소비 업종의 산업용 전력 사용량은 30만5416GWh로 작년 동기 대비 3.8% 늘 것으로 예상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농협 애플망고·무화과 수도권 소비자 공략 나섰다

25일까지 과일 판촉전

"슬기로운 여름생활은 전남 과일과 함께."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22일 수도권 농협 매장 5곳에서 전남 아열대 과일 브랜드 '오매향 애플망고'와 '상큼무화과' 판매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전남 과일을 만날 수 있는 수도권 매장은 양재, 창동, 성남, 수원, 고양 등이다.

판촉전은 '슬기로운 과일생활'이라는 주제로 이날부터 25일까지 나흘 간 진행된다.

백화점 등에서 품질을 인정받은 애플망고와 올해 산지에서 처음 수확한 무화과를 산지 직송으로 판매한다.

애플망고와 무화과는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부터 출하되는 고급 디저트 과일이다.

생과뿐만 아니라 샐러드, 요구르트, 빙수 등과도 잘 어울려 여름철에 인기가 많다.

박서홍 본부장은 "기존에는 여름 하면 떠오르는 과일이 수박과 참외였다면, 이제는 전남의 특색 있는 아열대 과일들이 여름을 대표할 수 있도록 시즌 마케팅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도초도 섬 내 시세 9억

- ▶ 임야 29,455㎡(구 8910평), 전망 좋음
- ▶ 회사 정리 차원에서 그냥 드립니다.
- ▶ 대출 1억2천만원, 사채 1억, 승계 가능자

오피스텔 매매 임대

-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 8층, 계약 108㎡ 전용 67㎡
- ▶ 사무실 전용, 창가, 전망 좋음
- ▶ 매매 - 1억1000만원
- ▶ 임대 - 보 1000만원에 월 60만원

덕남동, 임야

-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 임야 661㎡, 지분매매
- ▶ 매매 - 6000만원

오피스텔 신축부지

- ▶ 신안동, 대지 582㎡(구 176평), 상업지역
- ▶ 지하 지상10층, 15평, 72개 허가특
- ▶ 법인 양도·양수 가능
- ▶ 분양/임대 100%될 장소
- ▶ 매매 - 협의

문의. 010-3605-5000